

“아정도 화재는 예상 못했다”는 카카오

전문가들 “투자비 아까워하는 업계 분위기가 일조” 지적

이번 ‘카카오톡 먹통’ 사태처럼 대규모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때마다 나오는 교훈이 있다. 바로 백업 시스템 구비다. 내부 시스템 오류든 이번처럼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든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복구할 시스템, 또 대처할 방안을 담은 매뉴얼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은 통신 대란이 일어날 때마다 반복돼왔다.

그러나 카카오톡 등 여러 서비스의 동시다발 중단은 카카오가 과연 이런 업계의 교훈을 제대로 숙지하고 대비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16일 IT 업계 관계자들은 일제히 지적했다. 물론 카카오는 여러 데이터센터에 서버를 분산하는 이중화 작업을 해왔다고 해명한다. 나름의 대비책을 세웠다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카카오는 ‘화재’에 대비선 대비 못 한 특수 상황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양현서 카카오 부사장은 화재가 발생한 SK 주식회사 C&C의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16일 기자들과 만나 “예상하는 리스크(위험) 대응 시나리오가 있었지만, 화재는 위낙 예상을 못 한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대비책이 부족하지 않았다 본다”고 했다.

이를 두고 재난 대비를 하는 데 특정한 유형의 재난을 빼놓은 것을 두고 제대로 된 대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4년 전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KT[030200]의 대규모 통신 장애가 ‘화재’에서 비롯됐다는 교훈에서 아무것도 못 배운 게 아니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당시 서울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일대와 은평구,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 통신이 짧게는 이를, 길게는



15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판교 캠퍼스 A동에서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1주 이상 마비됐다.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난 불이 광케이블 등을 태운 탓이었는데, 화

재는 10시간여 만에 진화했으나 전화와

인터넷 회선 등을 복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더군다나 카카오는 10년 전에도 전력 공급 장애로 4시간 가까이 카카오톡을 서비스하지 못한 적이 있어 대비를 더 철저히 해야 했다고 ICT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카카오는 당시 서버를 LG CNS의 가산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두고 있었는데,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서버가 다운돼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를 일으켰다. 그때도 카카오 같은 인터넷 대기업은 여러 IDC에 시스템을 분산 운영해 ‘불통’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IT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로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잘 드러나지 않는 분야에 투입되는 비용을 아까워하는 기업들의 분위기 탓인 것으로 보고 있다. / 송진영 기자

금감원, 카카오금융사 ‘비상대응 적절성’ 전방위 점검



면 대형 금융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17일부터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증권 등 카카오 금융계열사를 대상으로 화재로 인한 전산센터 문제 발생에 따른 비상 대응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지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7일부터는 이번 사태에 대한 카카오 금융계열사들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살이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카카오 금융 계열사들이 전산 처리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장시간 먹통으로 인증 서비스 등에 문제가 생겨 자칫하

규 사항이 발견되면 현장 점검이나 검사에 바로 돌입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카오 금융 계열사들이 화재로 전산센터에 문제가 생긴 15일부터 16일까지 시간대별로 어떤 대응을 했는지와 비상 대응계획 매뉴얼 및 시나리오를 제출받아 그대로 이행했는지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런 유사한 서비스와 연계돼 영향을 받는 모든 금융사도 비상 대응계획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손혜은 기자

더 큰 평화를 위한 시작

디엠지에는 다 - 있지

2022.9.16.(금)~10.30.(일)

콘서트와 전시·문화 공연까지!

DMZ 평화 예술제

기후위기와 평화를 논하다!

DMZ 포럼

평화를 향한 가슴 뛰는 완주!

DMZ 런

Let's
DMZ

경기도 내 DMZ 일원

2022 Let's DMZ(www.letsdmz.or.kr) | Q

더 큰 평화
Let's DMZ
IN GYEONGGI

Photo News



의정부시민들,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의정부 입소 반대 집회
의정부 시민들이 1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청 앞 광장에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의정부 간생시설 입소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신종 마약 급증하는데 탐지견은 필로폰 등 6종 냄새만 맡아

민주 양기대 의원, 첨단기술 적용한 새 통관 체계 구상해야

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일명 ‘물뽕’이라 불리며 성범죄 악용돼 악명을 떨치는 GHB의 경우 2021년 한 해 적발량만 29kg에 달했다.

마약 탐지견은 특성상 양성 및 운용에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지만, 이처럼 신종 마약에 취약하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어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세청이 단속한 마약밀수 총 3천332건 중 4분의 1이 넘는 27%는 마약 탐지견에 의해 이뤄졌다.

그런데 현재 마약 탐지견으로 탐지할 수 있는 마약 종류는 대마·해시시·코카인·헤로인·메스암페타민(필로폰)·MDMA 등 6종뿐이다.

국내 마약류 밀수 규모에서 필로폰과 코카인의 비중이 크긴 하지만, 신종 마약 밀수는 2019년 44kg에서 2020년 21kg, 2021년 143kg 등 최근 들어 급증하

/ 최용성 기자

종반 접어든 국감…‘이재명 수사’ 등 곳곳 지뢰밭

환노위는 17일 김문수 고발 논의…文정부 기관장 출석 국감장서도 대치 예상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막판까지 여야의 극심한 공방으로 얼룩질 전망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4일 막을 올린 이번 국감은 반환점을 돌며 일부 상임위는 이번 주에 종합감사까지 마치는 등 종반전에 접어들었다.

마무리 단계에 왔지만, 여전히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감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김일성주의자’ 발언 관련 고발 등 각종 논란으로 여야가 언제든지 충돌할 수 있는 뇌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8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쌍방울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이재명 대표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과 이를 총력 방어하려는 민주당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같은 날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도 성남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등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개발사업 의혹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총살감’, ‘김일성주의자’라고 언급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에 대한 상임위 위원의 고발 여부를 논의한다. 김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위증죄 등으로 고발을 추진하는 야당과 ‘사상의 자유’를 앞세워 방어하는 여당의 대치가 예상된다.

같은 날 환노위의 근로복지공단 등 국감과 농림축산식품부·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등 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에서 임명된 피감기관장을 상대로 질의가 쏟아질 예정이다.

야당은 감사원의 ‘표적감사’를 문제 삼을 태세이고, 여당은 이들을 향해 자진사퇴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의 21일 종합감사에서도 전방위 사퇴 압력을 받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여야가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무위에서는 지난 4일 국감에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 공개되면서 불거진 ‘커닝 폐이파’ 논란도 다시금 불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17일 열리는 한국방송공사(KBS) 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최근 이른바 ‘바이든’ 자작 방송 등 사안과 관련해 공영 방송의 역할 등에 대한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 송원기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신당역 살인’ 전주환 18일 재판 시작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31)의 1심 재판이 18일 시작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재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의 첫 공

판준비 기일은 18일 오후 2시 30분에 연

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

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어 전씨

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피해자 측과 검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듣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의 변호인은 재판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전씨는 지난달 14일 밤 서울 지하철 2

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

하면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면

제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보복심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

다.

전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스토킹·불법 촬영 혐의 사건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 최준용 기자

이주호 후보, 자녀와 교육관련 연구보고서 공저…KDI에 게재

교육부 “후보자 자녀, 디지털경제학 전공 교수…연구에 상당한 기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20년 딸과 함께 연구보고서를 작성해 자신이 교수로 재직 중이던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학원에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20년 4월 ‘디지털 교과서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학업적 흥미,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The Effects of Digital Textbooks on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Academic Interest, and Learning Skills)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working paper)를 썼다.

보고서에는 이주호 후보자 등 3명이

공저자로 쓰여 있는데 후보자의 딸 이모(34)씨의 영어 이름도 포함돼 있다.

이씨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미국의 한 대학 조교수로 일하고 있다. 보고서를 쓸 당시에도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다만, 그가 작성한 연구보고서들의 경우 ‘스마트폰이 컴퓨터에 미치는 상호 보완적 효과’ 등 경제·산업적 관점의 연구가 대부분이며 교육분야의 다른 연구보고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 교수의 세부 전공은 ‘디지털 경제학’(Economics of Digitization)으로, 주된 연구분야는 디지털 기기, 디지털 격차, 디지털 도구의 효

과 분석”이라며 “후보자는 이 교수와 ‘교수 대 교수’로서 공동 관심분야에 대해 연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 기여도와 관련해서는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분석 모델을 적용해 디지털 교과서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자 했고, 이런 새로운 접근에 있어 이 교수의 학문적 배경과 전문성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3인의 연구자가 역할과 기여에 따라 협의 하에 이름을 옮겼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재직 중인 학교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딸과 함께 연구보고서를 쓰는 것이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KDI 대학원은 교원이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계제를 위한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번 건은 연구조교 장학금으로 177만원을 지원받았을 뿐이 후보자와 딸은 별도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한편, 연구보고서는 한국이 2014년부터 시범학교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며 정책연구를 위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디지털 교과서가 학생들의 학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이주호 후보자는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이던 2010년, CD로 된 전자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 등을 사용하는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연구학교를 지정해 초등학교 3~4학년 사회·과학 과목에 디지털 교과서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 김민경 기자

경기도교육청, ‘인사 사전 유출’ 정황 파악하고도 조사 중단

경기도교육청이 내부에서 인사 명단을 사전에 유출한 정황을 파악했으나 정식 감사 없이 사건을 매듭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청은 최근 인사명단이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하고도 추가 조사나 정식 감사에 착수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9월 1일자 발령 예정인 5급 이상 지

방교육행정공무원 100여명의 사전과 이름, 직급 등의 명단이 8월 25일 문서 파일로 사전 유출됐다. 유출된 문서는 교육감 보고용 파일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유출 사실이 알려진 뒤 감사관실을 통해 경위 파악에 나섰지만 정식 감사는 아니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유출자를 찾지 못했지만, 추가 조사나 정식 감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의원실에 보낸 답변 자료에서 인사 유출

직전, 비공식 라인을 통한 송수신 기록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 박영선 기자

KDIC 예금보험공사



희망이 담긴
당신의 예금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경찰 잘못으로 불법 촬영 무죄”

김병수 청장 “죄송하게 생각…수사관 역량 향상에 최선 다할 것”

국감서 경남청 수사역량 질타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남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수사역량 부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지난해 김해중부경찰서에서 한 여성이 연인인 30대 남성을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남성 USB에서는 불법촬영물 300건이 나왔고 그 외 다른 여성들에 대한 불법촬영물도 600건 정도 나왔지만, 경찰에선 불송치 결정을 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불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는데, 검찰로 넘어서 결론이 바뀌었다”며 “불법촬영 당시 고소인이 10대 여고생이었는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확고한 판례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성을 인정하는데 경찰이 그 부분을 놓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의 활동물 중 일부가 해외 SNS에 유포되기까지 했는데 더 적



답변하는 김병수 경남경찰청장

극적 수사가 필요했다고 본다”며 “경찰에선 ‘계시일자나 계시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고소인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또 “검찰에서 결국 아동청소년법 위반으로 일부 불법 촬영물에 대해 기소를 했는데 경찰의 USB 압수과정의 절차상 문제로 무죄가 났다. 고소인 입장에선 환장

할 노릇”이라며 “피의자 참석이 배제되는 등 압수수색에서 형사소송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 하늘이 무너지는 결론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이 밖에도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간음 피의자, 직장 상사를 4만여회 찾아간 스토킹 사범, 강간상해 사건에 대해서도 불구속 송치하는 등 구시대적 사고에 빠져 사건을 처리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라고도 말했다.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은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수사 경찰로 유능한 자원이 영입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거나 급변하는 수사환경에 대응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수사관을 키워내는 등 수사역량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국힘 서일준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몇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자신이 정한 날짜와 시간에 경찰이 직접 의원실로 찾아와 수사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모범을 보여야 할 입법기관 의원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니 공정한 처리를 부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김 의원은 서 의원의 실명은 거론하지는 않았다. 서 의원은 이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 송원기 기자

“文 평산마을 경호구역 100m 더 물리면 주민 불편 해소될 것”



문 전 대통령 사저 300m 경호 강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을 추가 확대해 집회·시위로 인한 주민 불편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14일 경남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현재 경호구역에서 100m만 뒤로 더 물리면 (확대하면)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경호구역 확대 이후에도 민원이 130여 건 발생하는 등 주민 고통은 여전하다”며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집회 제한 통고를 검토해주고, 양산 사저에 계신 문 전 대통령 가족뿐만 아니라 평산마을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데도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 정찬양 기자

한총리, 北위협에 “최악의 경우 대비해 명확한 억지력 있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현지시간)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관련 “상대의 조건에 따른 평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 있는

명확한 억지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미 3개국을 순방 중인 한 총리는 이날 오후 마지막 순방국인 아르헨티나 부

에는 에노스아이레스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얼마나 염증하게 보는가’라는 동행 기자단의 질문에 “(한반도가) 평화로워야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대에 의해서, 그 사람들(북한)의 선의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의 언급은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과 핵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북한이 뭘 해도 좋지만 제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지 말라

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국제 법규에 어긋나는 일까지는 못 하겠지만, 최대한 심정적으로 지원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은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상대의 조건에 따른 평화’로 국가를 운영할 수는 없다. 저도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자강 국방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한 나라가 (흔자서) 자국 안보를 책임지는 나라는 사실 없다. 미국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통해, 미국이 공격받으면 나도 국가들이 합류하게 되고 우리도 도와야 하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 김민석 기자

尹대통령,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위촉장



수여했다. 위촉장 수여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후 나 부위원장, 석 사무처장과 함께 기념 촬영하고 비공개 환담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

구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나 전 의원이 임명된 부위원장은 장관급이다.

/ 손해원 기자





우리금융그룹

당신만을 위한 1:1 맞춤 자산관리

TWO CHAIRS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오직 당신에게만 집중하는 자산관리 서비스
우리은행 투체어스에서 만나보세요



전문가와의 1:1 만남을 통한 자산관리 서비스, TWO CHAIRS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고객별 자산현황과 투자성향에 따른
포트폴리오 추천 및 세무, 부동산 분야
전문가 상담 지원

TWO CHAIRS 기본서비스

전용상담공간, 대여금고 서비스,
시크릿뱅킹 서비스,
해외유학·이주 상담 지원, TWO CHAIRS 매거진

TWO CHAIRS 특화서비스

호텔 숙박권, 최고급 레스토랑 식사권,
한우/와인 배송 서비스,
골프장 라운딩 이용권 등



※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는 가까운 영업점 전담직원에게 문의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TWO CHAIRS 기본서비스는 우리은행 TC등급 이상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영업점 사정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TWO CHAIRS 특화서비스는 금융거래 현황에 따라 선정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은행 사정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2.08.17 준법감시인-7846 심의필(유효기간 : 2023.12.31)

나토 전폭기 띄우고 러시아 ICBM 훈련

러, 핵탄두 가능한 야르스 훈련…이달말 ‘그롬 핵훈련’ 여부 주목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내주 대대적인 핵억지연습을 예고한 가운데 러시아는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훈련을 하면서 맞불 무력시위를 재점화했다.

나토는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연례 핵억지연습 ‘스테드페스트 눈’(Steadfast Noon)이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스테드페스트 눈은 핵전쟁 시나리오 등을 가정해 진행하는 나토 회원국 간 연례 연합훈련으로, 올해는 벨기에 주관으로 14개국, 총 60대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항공기가 참가한다.

벨기에·북미·영국 상공 일대에서 훈련 한다. 러시아 국경을 기준으로 약 1천km 이상 떨어진 지점으로 알려졌다. 실탄 등 실무기는 훈련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나토는 전했다. 다만, ‘하늘을 나는 요새’로 불리는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가 전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나토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복수의 B-52가 참여한다”며 “올해는 미 노스다코타주 마이크 공군기지에서 날아온 예정”이라고 밝혔다. B-52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 핵잠수함(SSBN)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전략자산이다.

최대 31t의 폭탄을 싣고 6천400km 이상



모스크바 대로를 지나는 러시아의 야르스 미사일

의 거리를 비행하며 단독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최대 항속거리는 1만6천km에 달 한다. 4·5세대 최신에 전투기를 포함해 종류의 긴장 고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러시아를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지만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상’ 규모로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함으로써 우회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엔스 스톤턴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앞서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오래전 계획된 훈련을 취소하는 것은 오히려 “매우 잘못된 신호”를 보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강력한 군사력이 러시아와 모든 종류의 긴장 고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러시아를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오아나 룬제스쿠 나토 대변인은 “이번

훈련은 동맹의 핵 억지력이 안전하고 확

실하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며 “정례적이고 반복되는 훈

련 활동이며, 현재의 국제 현안과는 무관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나토의 훈련에 반발해 ‘맞불 훈련’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13일 ‘야르스’(Yars) ICBM을 포함, 병력 3천여명과 차량 300여대를 투입해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대 사거리가 1만2천km에 이르는 야르스 미사일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마저 뚫을 수 있으며, 최소 4개의 분리형 독립 목표 재돌입탄두(MIRV)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탄두의 위력은 150~250kt(TNT 화약 폭발력 기준 15만~25만t) 규모다.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12kt)의 12~20배에 달한다.

여기에 러시아가 매년 10월 말께 전략 자산을 다수 동원한 대규모 핵전쟁 훈련인 ‘그롬’(Grom·우뢰)을 시행 시기도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훈련이 취소됐으나, 올해는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올해 2월에 이례적으로 해당

훈련이 진행된 바 있다. 이달 말 다시 한

번 훈련을 할지 여부는 아직 발표하지 않

았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그롬 훈련은 정례적”이라고 언급, 이번에도 시행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예의 주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서정미 기자



바이든 대통령 연설 장소에 모여든 이란 규탄 시위대

바이든 “이란, 자국민에 폭력 멈춰야”

‘히잡 시위’ 진압 비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 당국이 ‘히잡 의문사’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대를 상대로 폭력을 펼출 것을 촉구했다고 AFP·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벨리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연설을 통해 “이란은 단순히 기본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국민들에 대해 폭력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을 자유롭게’, ‘여성·생명·자유’ 등 문구가 담긴 팻말을 들고 연설 장소에 모여든 페르시아계 등 시민들을 언급하며 “우리가 이란의 시민들, 이란의 용감한 여성들과 함께 서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에 깨어난 무언가는 아마 한동안 잠잠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했다.

이어 “세계 곳곳의 여성의 다양한 방식

으로 박해를 받고 있지만, 신의 이름 아래 그들이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수 있어야만 한다”며 “여러분이 (이란 여성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에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이란에서는 지난달 여성 대학생 마흐

사 아미니(22)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

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갔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진 사실이 알려진 이후 광

범위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노르웨이 오늘로써 본부를 둔 시민단체 ‘이란 인권’(IHR)은 이란 당국의 강경 진압으로 현재까지 100명이 넘는 사망자

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사망자 수는 더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 김광영 기자

IMF “중국 내년 하반기까지 ‘제로 코로나’ 유지할 듯”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이 내년 하반기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1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티븐 바넷 IMF 중국 주재 대표는 이날 블룸버그TV에 출연해 이같이 예상하고 중국 경제의 회복을 위해 더 강력한 통화·재정 경기부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가 본격 확산 한 2020년 초부터 3년 가까이 대대적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도시 봉쇄, 지역 간 이동 제한 등으로 대표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해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3.2%에 그칠 수 있다고 바넷 대표는 전망했다. 또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2020년과 2021년에는 효과 적이었으나, 올해 들어서는 감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상하이 같은 대도시의 전면 봉쇄조치로 번져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줬다고 지적했다.

바넷 대표는 중국 당국이 투자보다는 소비를 진작하는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내수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권유희 기자

日정부, 출산준비금 신설 추진…“아이 1명에 100만원 쿠폰”

출산 여성 추가 지원책…일대일 상담 제도도 만들기로

일본 정부가 임신 여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출산준비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출산준비금은 자체에 임신 신고서를 제출해 모자(母子) 수첩을 받은 모든 여성에게 지급되며, 아이 1명당 10만 엔(약 97만원) 상당의 쿠폰을 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쿠폰으로는 출산 전후에 아기 옷이나 유모차 등을 구매하고, 산후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출산준비금을 쿠폰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출산·육아와 관련된 물품과 서비스만 구입하도록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짚었다.

일본은 기존에도 여성의 출산하면 아이 1명당 42만 엔(약 407만원)을 주는 ‘출산육아일시금’ 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제왕절개 수술을 받지 않고 정상 분만을 해도 약 47만 엔(약 456만원)



의 출산 비용이 들어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본 정부는 임신 여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보건 인력이 출산 여성과 일대일 상담을 하는 제도도 만들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출산 장려책을 확충하는 이유는 출생아 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본의 출생아 수는 관련 통계

BRAVE
[용감하게]
금융플랫폼 KB Pay

INSIGHT
[통찰력있게]
미래를 위한 글로벌 진출

GREAT
[위대하게]
ESG경영 실천

KB Pay

카드를 넘어 금융플랫폼으로
BIG MOVEMENT

준법감시인 상의필 제220805-02589-ADP(2022.8.5 기준)

KB 국민카드

4년 만에 열린 방사능 방재훈련…긴장감 없이 진행 ‘허술’

대전시·원자력 관련 기관 합동훈련…훈련 중 기념사진 찍는 모습도



대전시와 원자력 관련 기관, 의료기관들이 14일 유성구 한 공터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하나로 원자로 화재로 인한 방사성 물질 누출 상황을 가정한 ‘방사능 방재 합동 대응훈련’을 하고 있다.

대전시와 국내 원자력 관련 기관, 의료 기관 등 20여개 기관이 14일 대전에서 4년 만에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을 실시했지만, 긴장감 없이 허술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드러내 아쉬움을 남겼다.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운영하는 하나로 원자로에서 불이나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것을 가정해 진행된 이날 훈련에는 대규모 인원인 7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훈련은 사고를 신속하게 수습·복구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

가상의 사고 현장과 떨어진 다른 한쪽에서는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주민의 피폭량을 검사하고, 현장에 임시 진료소를 꾸린 의료진이 피해가 심각한 환자를 치료해주는 훈련도 병행했다.

하지만 실제 훈련이 진행되는 내내 긴

장갑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훈련에 참여한 일부 의료진은 훈련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모여서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도 보였다.

한 참가는 훈련 시간이 늘어진데다 맑은 가을 날씨 때문인지 “소풍 온 것 같았는데…”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실제 상황이라면 방사성 물질이 퍼졌을 수도 있는데, 훈련장을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는 모습은 다반사였다.

의료기관은 현장 주변에 방사선 비상 진료소를 설치해 주민 피폭량을 조사하고 상태가 심한 환자들을 진료하며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는 훈련도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훈련 지원 나온 일부 의료 인력이 기념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다음 훈련에서는 그런 모습 없이 실전처럼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재일 기자

노동부 차관 “변화한 취업 트렌드 맞춰 고용서비스 고도화”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연내에 방안 발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14일 급격히 변화하는 취업 트렌드에 맞춰 인력 미스매치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이날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서비스 고도화 확대 포럼’에서 “한국은 국민취업지원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등 행정 대상 확대와 온라인디지

털 경제로의 산업전환, MZ세대로 대표되는 취업 트렌드 변화 등 급격한 환경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차관은 “변화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할 것”이라면서 “서비스 전달체계를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고 고용센터가 개별 국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민간기관과 협업을 강

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이 취약 계층의 급여 의존 성향을 어떻게 낮췄는지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취업상담사가 운영하는 구직자 온라인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온라인 직업훈련을 강화한 프랑스, 프로파일링·목표설정·취업전략설정·실행 및 모니터링에 이르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독일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는 특

히 “관대한 실업급여는 수급자의 복지 의존 성향을 높여 장기실업 또는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용복지센터의 적극적 취업 지원 서비스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차관도 “사회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이 급여 수급에 의존하지 않고 가치 있는 일을 통해 더 나은 삶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서비스와 직업훈련 등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 배수빈 기자

작년 대부업 수입 3조5천억원

5년새 4천100억원 증가



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업체의 경우 지난해 업체당 평균 수입만 1천497억원에 달했다.

실제 대부업 대출 규모는 최근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의 ‘2021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14조6천429억원으로 전기 대비 1천288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담보대출이 741억원 늘며 전체 잔액의 52.0%(7조6천131억원)를 차지해 신용대출 비중(48.0%)을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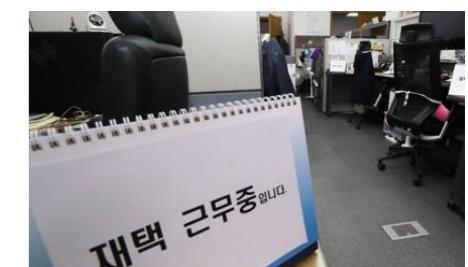
신용대출 비중이 줄었다는 것은 담보가 없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감소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대부업체에

서까지 밀려난 저신용자들은 자칫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진선미 의원은 “최근 기준금리가 3%까지 오르면서 대부업 조달 금리가 높아져 대출자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과잉 대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서민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영택 기자

재택근무율 70%…노동장관, 유연근무 우수기업 방문



직원 10명 중 7명이 재택근무를 활용하고 2시간 단위로 휴가를 낼 수 있는 기업.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14일 유연근무 우수사업장으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이스트 소프트 본사를 방문해 유연근무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직원들의 경험담을 들었다.

알집과 알약으로 유명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이스트소프트는 오전 8~10시 사이 출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고 있다. 직원 179명 가운데 126명(70.4%)은 재택근무를 한다.

노동부는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1년 노동부로부터 유연근무 컨설팅

을 받기 이전인 2020년에는 30%였던 재택근무율이 2년 만에 40%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 장관은 “앞으로 노사가 자율적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채민 기자

함께하는 100년 능서농협 조합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민신문 창간 58주년 및 NBS 한국농업방송 개국 4주년을 축하합니다’

경 능서농협 종합청사 준공 1주년 축



조합장 이명호

- 👑 농협중앙회 선정 우수건축물 최우수상 수상
- 👑 2022년 상반기 종합업적평가 1위 수상
- 👑 2021년 종합업적평가 그룹내 2위 수상
- 👑 능서농협종합청사 준공기념 1주년(2022.08.17)

이 사 김선기 문홍규 엄대흠 이완우 임형선 지종성 이미숙
사회이사 권오도 상임이사 엄경희
감 사 안은엽 황순걸 상 무 엄명기 길형민 이현주 경시현



의정부시장 “모든 행정 수단 동원, 김근식 의정부 이송 막겠다”

미성년자 성폭행범인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시에 거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해서 악질 성범죄자 김근식의 의정부 이송을 막겠다”라고 15일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국·소장을 소집해 4차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자신의 SNS에 이런 내용을 올렸다.

이어 “오늘부터 전 부서 직원들의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면서 “만에 하나 발생할 모든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가 김근식의 입소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인근 도로를 폐쇄하겠다”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김근식을 태운 차량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의 의정부 입소를 의정부 시민들과 힘을 합쳐 반드시 철회시키겠다. 행동으로



지난 14일 김동근(가운데)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오영환(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김근식의 의정부행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이 이런 내용을 SNS에 올리자 시민들은 댓글에 “적극 대처 정말 감사드려요~ 행동으

양주·서울 노원구·도봉구 방향으로 가는 도로 막아주세요”, “우리 경기 북부 지역에 절대로 발 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앞서 지난 14일 미성년자 성폭행범인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시에 거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정부시와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김 시장과 최정희 시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근식이 의정부에 있는 간행시설인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 예정”인 것을 확인했다.

이어 이들은 “법무부 장관에게 의정부 간행시설 입소 지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하고 17일 출소한다.

김근식이 의정부에 거주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 등 지역사회에 반발이 커지고 있다.

/ 송종호 기자

경기 지역화폐 사용액 2년새 17배 증가 작년 5조9천억원 사용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삼감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지역화폐 사용액이 2년 새 17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지역화폐 누적 사용액은 62조219억원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경기(경기지역화폐)가 13조3천163억원으로 가장 많은 21.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인천(인천e음) 12조1천679억원, 부산(동백전) 5조147억원, 대전(온통대전) 4조1천198억원, 경북(23종) 3조3천551억원, 전남(22종) 3조550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 중 경기도 누적 사용액은 경기지역화폐 사업을 시작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 8개월치를 합산한 금액이다.

송 의원은 “이번에 광역 시도별 전수 조사해보니 지역화폐의 사용은 매우 활성화돼 있었다”며 “지역화폐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따지는 시각에서 벗어나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화폐 정책 본연의 취지에 집중해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정미 기자

인천시 “승기천 물길 복원해 도심 상습침수 해소”



인천의 대표적 도심하천인 승기천의 물길을 되살리는 방안이 추진 조했다. 이번 승기천 복원사업 제안은 인천시 ‘온라인 열린시장설’에 게시된 이후 30일간 시민 3천66명이 공감해 시의 공식 안한 시민들을 만나 이같이 답변했다.

이 부시장은 “승기천 복원은 생태환경을 회복해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도 추진에 이견이 없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승기천 물길 이음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

/ 장수경 기자

쓰레기 문제로 오세훈-野 설전…“인천만 희생” vs “합의 지켜야”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야당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인천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이날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인천에 가져와 매립하고 있는데 작년에만 15t 덤프트럭으로 1만8천 대 분량”이라며 “한강에서 오는 바다 쓰레기도 인천에서 치우고 있는데, 같이 돈내고 처리하자고 했더니 서울시가 용역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하철 5호선 검단, 김포를 연장해달라고 했더니 서울시는 건설폐기물처리장을 인천에 만들어주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면서 “쓰레기는 발생지 처리가 원칙인데, 인천 시민만 희생이라고 하고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따졌다.

지역구 의원들, 매립지 종료 요구…마포구 새 소각장 설치 결정 비판도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는 약속을 안 지킨 게 없다. 7년이 지났다고 해서 (합의 내용을) 다 무시하고 (쓰레기) 못 받겠다고 하는 건 인천이지 서울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또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므로 자체 하겠지만, 때마다 인천시와 합의하면서 서로 치열하게 주고받을 것을 교량해 균형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인천 지역구인 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인천 시민이 원하는 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라며 “대체 매립지를 노력했는데 못 찾았다”가 아니라 최소한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한다는 원칙 하에 언제 어떻게 종료할지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서울의 신규 광역 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후보지로 마포구 상암동이 선정된 과정을 문제 삼았다. 허 의원은 “폐기물시설 촉진법 개정 전 내용은 (소각장) 2km 이내 지역에 무조건 협의하게 돼 있다”며 “서울시가 법 개정 이전에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으므로 900m 떨어진 고양시와 사전협의를 했어야 하지만, 시는 300m 이내 자치단체와 협의하면 된다는 개정 후 법 조항을 적용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또 서울시가 후보지 선정 이전에 공청회 등 자리를 열지 않은 것 역시 법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지

켰고 저희는 나름대로 설명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해석 여하를 떠나 도리상 인접한 자자체 협의가 도리이므로 첫 주민설명회(18일) 직후 고양시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얼마 전 서울시당과 당정 협의 때도 이 문제로 갈등이 벌어졌다”며 “생활 공동체 일원이니 소각장 신설에 최선을 다해 불필요한 갈등을 종식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서울의 쓰레기 매립량 주의를 표시한 패널을 꺼내 들며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고 소각장도 만들려고 노력 중이다.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 황희정 기자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 흥천양수발전소는 지역과 함께 합니다.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



“전북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해야” 국감서 주문 이어져

“전임 대전국세청장의 건설사 사외이사 선임 부적절” 질타도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전북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은 전북본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이날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전북은 외부인이 전북에서 쓰는 역내 소비는 크게 늘지 않았는데, 도민들이 도 외 지역에서 쓰는 역외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전북의 지역 내 총생산은 전국 최하위권이고, 20대의 인구 유출도 심각하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위원도 “한국은



14일 오후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송두석 대전세종충남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행 전북본부 역시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한경수 한국은행 전북본부장은 “온라인 소비가 늘면서 도민들의 역외소비가 높아진 측면이 있다”며 “역내 소비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에 대해서는 청년층의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등은 “지역개발 호재와 청년층의 주택 수요가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부실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서울국세청이 대전에 위치한 계룡건설에 대해 교차 세무조사를 하는 사안도 다뤄졌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대전지방 국세청이 해야 할 조사를 서울국세청이 하는 이유는 전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퇴임 계룡건설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며 “퇴임 후 3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관할했던 지역의 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적절치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경열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여러 가지 입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앞으로 국세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만수 기자



“모듈러 교실 설치 결사 반대”

“모듈러 교실 철회” 대전 용산초 학부모 17일부터 등교 거부키로

조립식 건물인 ‘모듈러 교실’ 설치 계획에 반발하는 대전 유성구 용산초 학부모들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으로 자녀들의 등교 거부에 나선다.

14일 용산초 모듈러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6학년을 제외한 1~5학년 전교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55%가 등교 거부에 찬성했다. 모듈러 교실은 규격화한 건물을 완성한 뒤 현장으로 옮겨 조립·설치하는 형태이다.

비대위는 교육 당국의 예측과는 달리 내년 2학기부터 학교에 달릴 것으로 예상되는 1·3블록 입주예정자 자녀 수만 780여명에 달하고, 2·4블록 입주예정자 1천여명에 걸쳐 모듈러 교실 설치에 반대하는 학부모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450여 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용산초에 ‘초과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 우려가 제기됐고, 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모듈러 교실 설치안을 내놓았다. 지난달 29일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용산초 모듈러 설치 예산안이 통과됐고, 교육청은 이달 중 모듈러 설치 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용산초 구성원들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듈러 설치를 반대하는데 왜 모듈러 설치를 강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연지민 기자

‘전국 최초’ 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공식 개소



관계 형성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간담회에는 당사자 가족들이 참석해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전문 상담가들은 은둔형 외톨이는 당사자가 대인관계에 마음을 닫아버린 특수한 상태인 만큼 지속적인 상담, 가족의 심리적 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당사자 가족은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방 밖으로 나오지 않고 혼자 버스를 타는 것조차 어려워했지만 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웃고 말도 하기 시작했다”며 “가족 상담까지 가능한 센터 덕분에 절망에서 희망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방 밖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은 이들을 위해 광주시가 주체가 돼 여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김나희 기자

전북 남원시는 내년에도 모든 시민에게 자전거 보험 혜택을 준다고 14일 밝혔다.

남원시민이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로 숨지거나 후유장해를 입으면 최대 500만원,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으면 최대 50만원의 위로금을 준다.

또 자전거 사고를 내면 최대 200만원의 변호사 선임비와 피해자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급된다.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혜택을 볼 수 있다.

최경식 시장은 “시민이 좀 더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돼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문성 기자

북한 잇따른 포사격에 강원 동해안 접경지역 주민 ‘촉각’

애초 택지개발업체는 용산초 인근 산지구에 2023년 4월 입주 예정인 3천 50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학교·유치원 용지를 확보했으나, 대전교육청은 ‘예상 학생 수가 480여명 정도여서 인근 학교를 증축해 수용하면 가능하다’며 대전시와 협의를 거쳐 초등학교 용지를 반납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특별한 변화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갔다.

통일전망대 관광객 출입은 물론 주민들의 영농작업을 위한 민통선 출입도 평소와 같이 진행됐다. 하지만 동해안 주민들은 잇따라 전해진 북한의 잇따른 포사격 소식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통일전망대 관계자도 “이번 일이 전망대 출입 통제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위승연 기자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협회 가입 의무화 건축사법」 시행에 따른

건축사 윤리강령 선포 (2022.09.01)

대한건축사협회와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 135개 지역건축사회는

대한민국 모든 건축사의 뜻과 힘을 모아 안전한 건축, 행복한 주거를 향한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건축사협회 가입 의무화 건축사법’ 시행 (2022.8.4)



202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개회식 (2022.09.01)

**2022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전시회 주제: **건설신기술!**
기술을 넘어 혁신으로

2022. 10. 26(수)~27(목)

**2일간 신한대학교 실내체육관
(은혜관 지하2층)**

개막식 및 시상식**| 일시 | 2022. 10. 26(수) 10:40~12:00****| 장소 | 전시장 내 특설무대****| 내용 | 개막행사 및 건설신기술 경진대회 유공자포상 시상식****경기도 신기술·특허 정책 포럼****| 일시 | 2022. 10. 26(수) 14:00****| 장소 | 전시장 내 특설무대****| 내용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주최 |  경기도주관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후원 |  경기도의회 의정부시 신한대학교
SINHAN UNIVERSITY

3년만의 지구촌축제…이태원 상인들 “반갑다 대목”



2018년 이태원 지구촌 축제

월말 헬러원까지 특수 이어져

“위스키 밤주 물량을 배로 늘렸어요. 과일과 치즈도 평소 주말보다 두세 배는 더 많이 준비해뒀습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1인 술집을 운영하는 김모(36)씨는 지난 14일 밤 “요즘 점차 손님이 늘기는 했지만 이번엔 ‘진짜 피크를 찍을 것 같다’며 기대감에 찬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3년 만의 ‘이태원지구촌축제’를 맞는 인근 상인들이 오랜만에 찾아온 대목에 들썩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거주자와 관광객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타격을 입은 상권이 이번 축제를 계기로 완전히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축제 기간인 15~16일 이태원관광특구 일대는 교통이 통제되고 주 무대와 공연 구역·DJ박스·세계음식존·문화체험존 등이 마련된다.

세계 각국 공연단 32팀 1천여 명이 참여하는 지구촌 퍼레이드 등 각종 행사를 구경하고 근처 술집과 식당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상인들은 헬러원 직전 주말인 이

이태원역 인근에서 레스토랑을 하는 박모(44)씨는 “저녁 시간대는 열흘 전쯤 예약이 마감됐다”며 웃었다.

박씨는 “동료 상인들 말을 들어보면 최근 2~3년간 외국인 손님이 80%는 줄었다. 그러다가 관광객이 자유롭게 입국하게 되면서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며 “이번 기회에 코로나19 이전만큼 (매출이) 회복되면 더 바랄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처의 또 다른 식당 사장 A씨는 “최근 들어 해방촌과 이태원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살아나는 상황이어서 체감상 예약이 훨씬 더 몰린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면서도 “상징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이태원의 존재감을 알리는 홍보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부 상인들은 헬러원 직전 주말인 이

달 28~30일까지 ‘이태원 특수’가 이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태원 중심부에 있는 바(bar)의 한 직원은 “이태원은 전통적으로 헬러원이 난 10월에 사람이 바짝 몰린다. 코로나19로 외출을 별로 하지 않던 작년에도 이 시기에 손해를 떼웠다”며 “올해는 그때보다 손님이 두 배는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과거 축제 기간 교통 체증과 야간 소음에 시달렸다면 달갑지 않아 하는 주민도 있다.

행사구역 인근 경리단길에 12년째 거주하는 주부 오모(63)씨는 “지구촌 축제가 있을 때마다 거리에 며다 남은 술병이나 담배꽁초가 넘쳐났다”며 “상권이 살아나는 건 좋지만 여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갑지만은 않다”고 했다.

/ 고광복 기자

독일 프랑크푸르트서 11번째 한국영화제…개막작 ‘헌트’

독일 최대 규모의 한국영화제로 꼽히는 ‘제11회 프랑크푸르트 한국영화제’가 20~26 일(현지시간) 현지 영화관 2곳에서 열린다.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과 한국문화에 관심 있는 현지인들로 구성된 ‘프로젝트K협회’는 올해 영화제의 개막작은 배우 이정재의 감독 데뷔작으로 칸 영화제, 토론토 국제영화제 등 해외 유수 영화제에 초청된 ‘헌트’가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영화제 비경쟁 부문 초청작 ‘비상선언’, 베를린 국제영화제 어린이·청소년 영화 부

문 초청작 ‘비밀의 언덕’을 포함해 ‘범죄 시 2’, ‘외계인’ 등 총 21편이 상영된다. 폐막작으로는 홍상수 감독의 새로운 흑백영화이자 베를린 국제영화제 은곰상 심사위원대상 수상작인 ‘소설가의 영화’가 상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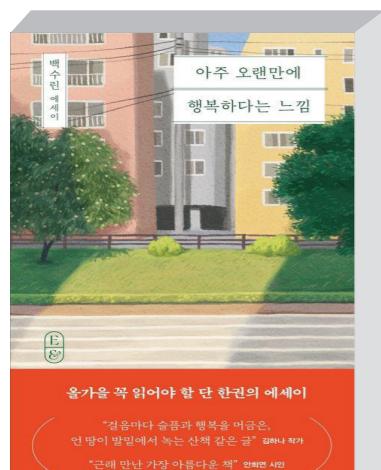
영화제 기간에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디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독일사무소는 개막 리셉션에서 한식 팅거푸드와 전통주를 소개한다.

/ 백혜련 기자



New Book



아주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느낌

2011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한 백수린의 신작 에세이다. 올봄부터 4개월간 창비 온라인 플랫폼 스위치에서 일부를 연재할 당시 매월 1천 건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에세이는 작가가 몇 년 전 자리 잡은 서울의 한 오래된 동네를 배경으로 한 기록이다. 아파트를 벗어나 살게 된 언덕 위 동네에서 만난 이웃들은 더불어 사는 의미를 깨닫게 한다. 그곳에서 떠나보낸 반려견 봉봉과 사랑하는 사람들, 이별을 겪으며 깨달은 인생에 대한 통찰, 여성 작가로 살아가는 일상과 고민에 대한 이야기가 촘촘하게 담겼다.

백수린 지음 / 창비 / 232쪽 / 1만4천 원.



어느 날 거위가

2019년 등단한 작가의 첫 소설집으로 밀접한 상상력이 가득한 여덟 편의 단편을 묶었다. 등단작인 표제작은 사람이 거위로 변해 치킨집에 기거한다는 독특한 설정의 이야기다. 광고사직 통보에도 퇴사하지 않고 로비에 걸린 그림이 된 직장인, 숨 막히는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몸에 숨통을 달고 인간 고래가 되는 중학생 등 소설 속 인물들의 갑갑한 현실이 환상세계로 변모한다. 군더더기 없는 문장과 담담하면서도 위트있는 서술이 돋보인다.

전예진 지음 / 문학과지성사 / 260쪽 / 1만4천 원.



이제 그것을 보았어

12년 차 문학 편집자이자 8년 차 평론가인 저자의 첫 산문집이다. 저자가 만나고 보고 겪은 52편의 문학 작품 속 엔딩의 미학을 살폈다.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이상의 ‘날개’, 기형도의 ‘엄마 걱정’, 박지영의 ‘고독사 워크숍’ 등 고전과 최근작, 국내외 작가들 작품을 망라했다. 저자는 “마지막 문장은 끝까지 읽은 사람만 그 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광활한 세계”라며 “작품을 정직하게 완주한 사람만이 마지막 한마디의 무게를 정확히 가늠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박혜진 지음 / 낭다 / 328쪽 / 1만6천 원.

사설

문명의 이기 자동차 대신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송승기
(논설위원))

절이나 휴가철에는 전국 국토에서 정체 현상을 빚는 자동차 왕국으로 접어들었다. 시골 농부가 눈에 물꼬를 트기 위해 자동차를 몰고 가는 세상, 자동차로 인한 관련 산업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나열할 수도 없을 만큼 방대하다.

산술적으로 보자면 1가구 1차량은 기본이고 주차장에서 100m도 걸지 않을 만큼 운전자들의 편의추구는 끝이 없다. 이제 도로상에서 벤츠나 BMW 등 외제차도 300만대가 굴러다니니 과연 한국의 자동차 사랑은 글로벌 세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종주국으로 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운전이란 것을 자만해 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자신만 잘한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사고는 언제 어디서 달려들지 모르는 저승사자들이 도쳐 않는 2차 오염을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시대적 변화가 새로운 청정에너지 산업을 이끌어 가지만 이제 자동차를 빼놓고는 살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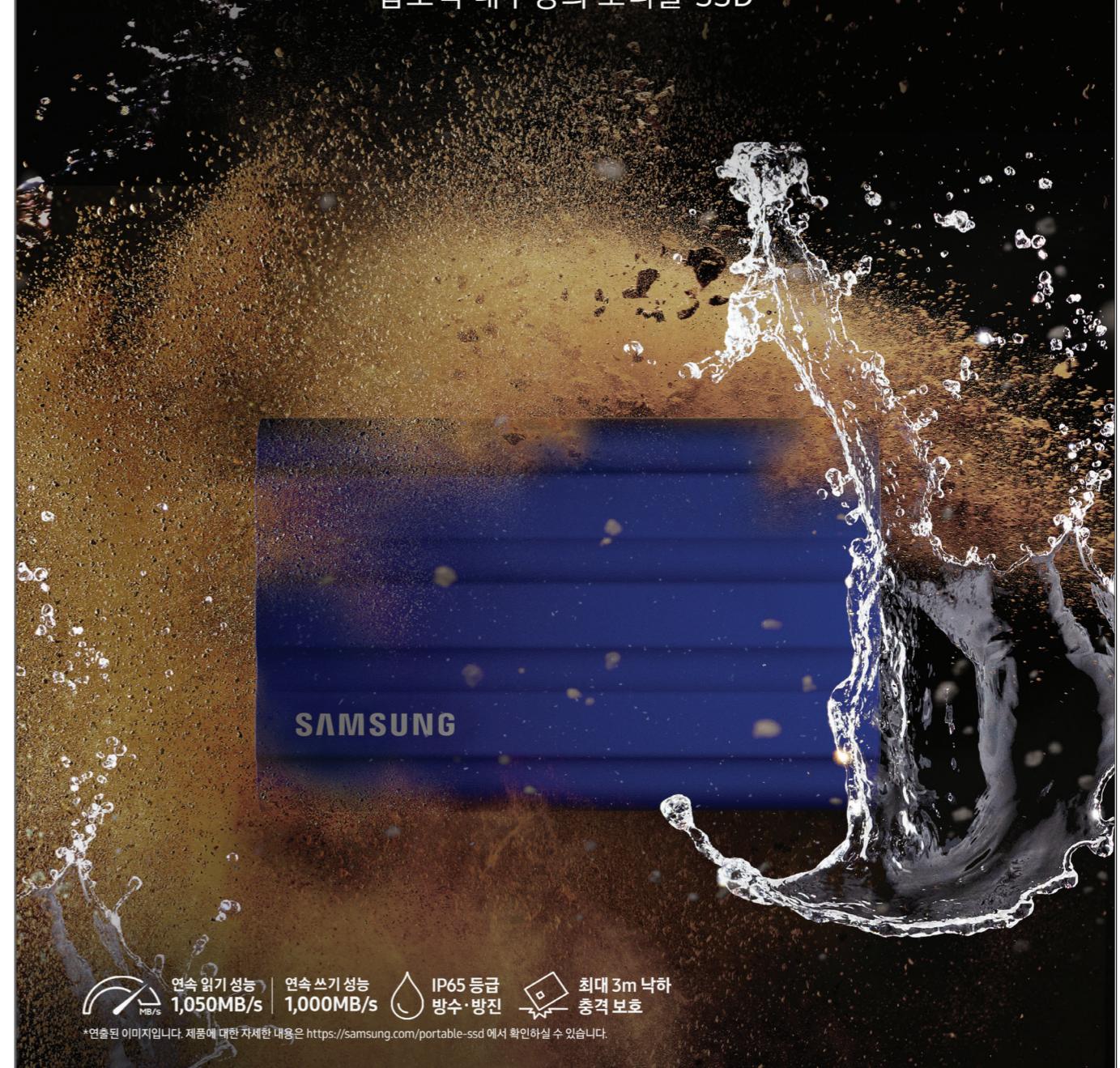
당연히 아스팔트는 없었고 지금처럼 고속도로나 주유소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전쟁이 한바탕 훑쓸고 간 대한민국 땅에는 1956년 약 5천대의 차량이 다시 거리에 등장했지만 열악한 주행환경은 여전히 아무 대책이 없었다. 우리나라 자동차의 실질적 출발은 1955년 8월에 선을 보인 시발자동차로 1963년 까지 약 5천대가 생산됐다.

2022년 2,521만대를 넘어선 자동차는 전국의 주택가에 주차 전쟁으로, 명

SAMSUNG

T7 Shield

압도적 내구성의 포터블 SSD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한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

‘연결’이라는 크고 깊은 변화로
모두의 금융이 되겠습니다

'샷 이글' 앞세운 임진희, 석 달 만에 KLPGA 투어 우승 '정조준'



임진희(24)가 석 달 만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시즌 두 번째 우승을 바라보게 됐다.

임진희는 15일 전북 익산시 익산 컨트리클럽(파72)에서 변형 스테이블 포드 방식으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동부건설·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총상금 10억원) 3라운드에서 14점을 따

내 중간합계 35점으로 선두에 나섰다.

작년 BC카드 한경 레이디스컵에서 생애 첫 우승을 올린 뒤 올해는 지난 7월 맥콜·모나파크 오픈에서 통산 2승 고지를 밟은 임진희는 또 한 번 정상에 오를 기회를 만들었다. 이 대회는 타수가 아니라 앤버트로스 8점, 이글 5점, 버디 2점, 보기 -1점, 더블보기 이상 -3점 등 점수를 부

여해 순위를 가리는 변형 스테이블 포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버디 5개로 10점을 얻어낸 임진희는 7번 홀(파4) 샷 이글 덕을 톡톡히 봤다.

127야드를 남기고 친 두 번째 샷이 홀에 빨려 들어가면서 단숨에 5점을 획득했다. 13번 홀(파3) 3퍼트 보기로 1점을 잃은 게 옥에 티였다.

임진희는 “전반에는 긴장하지 않아 정말 잘 쳤는데, 후반에 선두라는 소리 듣고 긴장이 되고, 부담감이 생겨서 아쉬움이 조금 남는다”면서 “그래도 샷 이글도 나오고 전체적으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최종 라운드 전망을 묻자 “점수제라 정말 알 수 없다. 나도 오늘 전반에는 11점을 획득했는데, 후반엔 3점을 그쳤다”면서 “내 순위를 보니 경기 방식으로 보니 조금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하겠다”고 밝혔다.

생애 첫 우승에 목마른 이가영(23)은 보기 없이 버디 6개를 쓸어 담아 중간합

계 34점으로 최종 라운드 역전승에 도전한다.

지금까지 4차례 준우승을 차지한 이가영은 올해만 2차례 준우승을 했다.

이가영은 “오랜만에 챔피언조라 새로운 마음이고, 정말 좋다. 버디가 많이 나와야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퍼트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 내일은 퍼트를 최대한 과감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2승을 따내고 상금랭킹 2위와 대상 포인트 1위를 달리는 김수지(26)는 버디 8개와 보기 2개를 묶어 14점을 따낸 끝에 공동 3위(31점)에 올랐다.

김수지는 첫날 공동 58위로 부진했지만, 전날 공동 9위로 올라섰고 이날 우승 경쟁에 합류하는 저력을 보였다.

이날 9점을 따낸 임희정(22)이 7위(29점)에 올랐다. 조혜림(21)은 6번 홀(파3)에서 홀인원을 기록해 무게 600g 황금공을 상품으로 받았다. 황금공 가격은 약 5천만 원이다.

/ 고영수 기자



이재성 시즌 2호 골 '쾅'…리그 5경기 만에 승리

마인츠, 브레멘에 2-0 완승…리그 9위 도약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마인츠에서 뛰는 이재성(30)이 시즌 2호 골을 터트리며 팀의 4경기 무승 탈출에 앞장섰다.

이재성은 15일(한국시간) 독일 브레멘의 베저 슈타디온에서 킥오프한 베르더 브레멘과 2022-2023시즌 분데스리가 10라운드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팀이 1-0으로 앞선 후반 21분 쇄기골을 넣었다.

이후 브레멘과 공방을 벌이며 0의 균형을 유지하던 마인츠는 전반 36분 선제골을 만들어냈다.

레안드루 바예이루가 중원에서 오른쪽 측면으로 찔러준 공을 대니 다 코스타가 크로스로 연결하자 마르쿠스 잉바르트센이 골 지역에서 헤딩으로 마무리했다.

전반 후반 11분 이재성이 시즌 2호 골이다. 8월 20일 아우크스부르크와 3라운드에서 시즌 마수걸이 골로 마인츠의 2-1 승리를 견인했던 그는 약 두 달 만에 리그에서 골 몇장을 봤다.

직전 라이프치히와 9라운드(1-1 무)에 이어 두 경기 선발로 출전한 이재성은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후반 31분 양젤로 풀지니와 교체돼 벤치로 물러났다.

최근 리그 4경기 연속 무승(2무 2패)에 그쳤던 마인츠는 이날 브레멘을 2-0으로 제압하고 5경기 만에 승리를 따냈다.

승점 15(4승 3무 3패·골 득실 -2)를 쌓은 마인츠는 리그 12위에서 9위로 올라섰다. 8위로 내려앉은 브레멘(승점 15·4승 3무 3패·골 득실 +4)과 승점은 같고, 골 득실에서 밀렸다.

이재성은 초반부터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며 상대 골문을 조준했다. 전반 2분 이디밀송 페르난드스가 뒤에



KBL, 홈페이지·모바일 앱으로
프로농구 전 경기 중계

KBL이 통합웹사이트(kbl.or.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2022-2023시즌 SKT 에이닷 프로농구 전 경기를 생중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각종 기록·검색·티켓 예매·상품 구매 서비스도 모두 통합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한다고 전했다.

올 시즌 프로농구 경기는 스포츠 전문 채널 SPOTV, SPOTV2는 물론 에이닷비(A. tv), 아프리카TV 등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2022-2023시즌 정규리그는 내년 3월 29일까지 열전을 이어 간다.

/ 민진영 기자

광고 문의 : 1533-1545



다시 승부의 세계로…이승엽 감독 “부담과 압박, 각오했습니다”

두산과 3년 총 18억원에 계약

이승엽(46) 두산 베어스 신임 감독은 현역 시절 지나칠 정도로 자기 관리에 철저했다.

“나도 너무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나를 흑독하게 다뤘다. 야구를 즐긴다는 건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2017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뒤, 더그아웃 밖에서 부담 없이 야구를 보던 이승엽 감독이 다시 ‘승부의 세계’에 뛰어들었다.

두산은 14일 “제11대 감독으로 이승엽 KBO 총재특보를 선임했다. 계약기간은 3년, 총액은 18억원(계약금 3억, 연봉 5억)”이라고 발표했다.

이승엽 감독은 현역 시절 ‘국민타자’로 불린, 한국 야구가 낳은 최고 스타다.

현역 시절에 느꼈던 것 이상의 부담감

이 ‘감독 이승엽’을 억누를 수도 있다.

이승엽 감독은 구단의 공식 발표 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역 때 상당한 압박감을 경험해봐서 더 걱정되기는 한다”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프로라면 그런 압박감, 부담을 이겨내야 한다. 감독 선임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부담과 압박도 극복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는 야구를 하고자 열심히 준비하겠다. 2023년, 두산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다.

/ 정수호 기자

NAVER 낙동강 세계평화 문화 대축전 ▾

제9회 9th Nakdong River World Peace Culture Festival

낙동강 세계평화 문화 대축전

제13회 낙동강지구 전투 전승행사

10/28(금) - 10/30(일)

칠곡보 생태공원 및 왜관 1번도로 일원

홈페이지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



무대 프로그램



10/28(금)
군(軍) 문화공연 (3일간) / 헬기 축하비행 (2일간)
통합 개막식 & 개막 축하 공연

10/29(토)

블랙 이글스 어어쇼

향사 박귀희 명창 기념공연

10/30(일)

어린이 평화 동요제

폐막 축하 공연 / 불꽃&드론쇼

전시&체험 프로그램

군(軍) 무기전시 / 호국평화 체험 / 일병 비둘기 NFT / 피스랜드 외



205 힐링 페스티벌

[왜관역~왜관시장 거리]

- Play존 (롤러 스케이트, DJ카 등)
- 칠곡 인문학 마을 (부스체험, 전시)
- 힐링 스테이지 *킹스턴 루디스카, 디춘자, 국악밴드 이상

BTS “현재 잡힌 콘서트는 이게 마지막…앞으로 30·40년 가야죠”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은 15일 오후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 ‘옛 투 캠 인 부산’에서 “저희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지더라도 방탄소년단 7명의 마음이 같고 여러분이 저희를 믿어주신다면 이겨 나가고 행복하게 공연하고 음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국내에서는 올해 3월 서울 잠실주경기장 이후 7개월 만이다. 부산에서는 2019년 6월 팬 미팅 공연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특히 방탄소년단이 지난 6월 앤솔러지(선집) 음반 ‘프루프’(Proof)로 제1막을 매듭짓고 솔로 위주로 음악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한 상황에서 멤버 7명 전원이 완전체로 참여한 콘서트에서 의미가 커다.

제이홉은 이날 방탄소년단의 미래를 언급하며 “이제는 믿음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방탄소년단도, 아마도 하나 된 믿음으로 미래를 그려갈 시기”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방탄소년단(BTS) 단독 콘서트 ‘옛 투 캠 인 부산’

팀의 맏형 진은 공연 말미에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만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증거”라며 “연습할 때는 큐시트가 길었는데, 막상 하다 보니 왜 이렇게 짧은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진의 이런 발언은 끝나가는 콘서트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지만, ‘힙합 아

이돌’에서 출발해 월드스타로 등극하기까지 걸어온 지난 9년간의 궤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들리기도 했다.

제이홉은 “무대를 하면서 저희만큼 여러분도 즐거웠을까 바란다”며 “함께 춤추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 세상 감사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리더 RM은 “이 순간이 영원할 수는 없

겠지만 우리에겐 또 다른 내일이 있다”며 “아쉬움보다는 기대감을 나눠 드리려 한다”고 오랜만에 만난 팬들을 달랬다.

방탄소년단은 이날 공연에서 ‘다이너마이트’(Dynamite)와 ‘버터’(Butter) 등 미국 벨리보드 싱글 차트 ‘핫 100’ 1위 곡부터 ‘포 유스’(For Youth) 같은 팬을 향한 감성 짙은 발라드까지 다채로운 트랙리스트로 그룹의 역사를 망라했다.

특히 공연을 끝내기 전 약 30분을 할애해 그룹의 미래와 팬들에 대한 애정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방탄소년단은 진이 현행 법규상 올해 연말까지만 입영 연기가 가능해 내년 그룹 활동은 ‘안갯속’인 상황이다.

진은 “저희가 일단 잡혀있는 콘서트는 이번이 마지막이었다. 또 언제 콘서트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 감정을 많이 담아둬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도 “투어야 언제든지 잡으면 되니 그때 되면 또 오실 거죠”라고 팬들에게 되물었다.

/ 김민경 기자



배우 안성기(오른쪽)와 배창호 감독이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에서 열린 이우석 동아수출공사 회장 회고록 ‘영화에 살다’ 출간 기념회에 참석하고 있다.

‘혈액암 투병’ 안성기 “괜찮아요” 특유의 환한 미소로 인사도

최근 혈액암 투병 소식이 알려졌던 이기도 했다.

배우 안성기가 14일 “괜찮다”는 말로 자신의 균황을 전했다.

그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에서 열린 동아수출공사 이우석 회장의 회고록 출간 기념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안성기는 얼굴이 다소 부어 보였으나 비교적 밝은 모습을 보였다. 그의 옆좌석에는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배창호 감독이 앉았다.

검은색 모자에 캐주얼 차림으로 행사에 온 안성기는 안부를 묻는 기자의 말에 “괜찮아요. 그냥 있어요”라고 답했다. 다만 야외활동을 많이 하느냐는 말에는 “거의 못 하지”라고 했으나 대화를 하는 동안 특유의 환한 미소를 보

안성기는 이날 자신을 알아보고 다가온 동료 영화인들과 인사를 주고받으며 밝게 웃었다. 후배 박중훈이 다가가 인사하자 반기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행사 말미 이 회장과 동료 영화인들과 함께 무대 앞에서 기념촬영도 했다.

앞서 그의 소속사인 아티스트컴퍼니는 지난달 안성기가 혈액암으로 1년 넘게 치료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안성기는 지난달 15일 서울 CGV 압구정에서 열린 ‘배창호 감독 특별전’에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동료 배우의 부축을 받는 등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 정미윤 기자

번잡한 도시 떠나 시골로…전원생활 담은 예능 기지개

최수종, 하희라 부부가 시골 빙집을 개조해 안식처를 만들고, 드라마 ‘전원일기’에 출연했던 원로 배우들이 농촌 마을에 모여 추억을 재현한다.

15일 방송가에 따르면 최근 잔잔한 전원생활을 담은 예능 프로그램들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달 말 첫선을 보이는 KBS 2TV 새 예능 프로그램 ‘세컨 하우스’는 친구 사이인 배우 주상우, 조재윤과 연예계 대표 임꺽정 부부 최수종, 하희라가 둘씩 전원생활에 도전하는 과정을 그린다.

이들은 시골의 한 빙집을 수개월 동안 직접 고치고 꾸며서 자신만의 안식처를 완성하고, 덧밭을 깨워 반찬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기획을 맡은 박덕선 책임피디(CP)는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귀농, 귀촌을 꿈꾸는 분들께 로망을 실현해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빙집을 수리하며 사라져 가는 시골 마을 공동체를 되살리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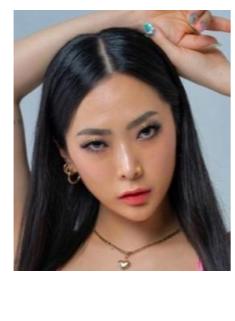
권예진 PD는 “도시 생활의 꽉꽉함을 잠시 내려놓고 전원생활의 여유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정겨운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처음 방송된 tvN스토리 ‘회장님네 사람들’은 장수 드라마 ‘전원일기’에 출연했던 배우들의 전원 일상을 담는다.

/ 민수호 기자

댄서 허니제이, 비연예인과 내달 4일 결혼

모어비전은 소속 댄서 겸 방송인 허니제이가 1세 연하 비연예인 연인과 내달 4일 결혼식을 올린다고 14일 밝혔다.



허니제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미래를 꿈꾸고 싶게 만든 상대를 만나 평생을 약속하게 됐다”며 “얼마 전 저희들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다”고 결혼과 임신 소식을 함께 알린 바 있다.

ENA PLAY와 채널A가 공동 제작하는 새 프로그램 ‘국민식당’이 15일 오전 9시 첫선을 보인다.

‘국민식당’은 의뢰인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유명 음식점 요리 고수들이 대결을 펼치는 예능이다.

/ 백하영 기자



tvN스토리 ‘회장님네 사람들’

검찰연합일보

www.unionilbo.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이수진 대표전화 1533-1545

인쇄인 한현숙 E-mail mbc0300@gmail.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신선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광고문의: 1533-1545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IFEZ, Global Business Frontier
탄탄한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IFEZ

ifez 인천경제자유구역
Incheon Free Economic Zone

INNOVATIVE GROWING CITY

POCARI
SWEAT

동아오츠카

네 안의
파랑을
깨워봐

